

김일성 등장역의 역사적 배경 부각

북한의 근대사 연구

金興洙

춘천교육대 교수 · 한국사

『朝鮮全史』(1979) 총33권 중에서 근대편은 13, 14, 15권이다. 13권은 1860년대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 14권은 갑오개혁 후부터 1910년까지, 15권은 1910년부터 1925년까지로 대략 60여년간을 근대사로 구성하였다. 원시 1권, 고대 1권, 중세 10권인 것과 비교해볼 때 나머지 18권인 현대사 다음으로 분량면에서 보더라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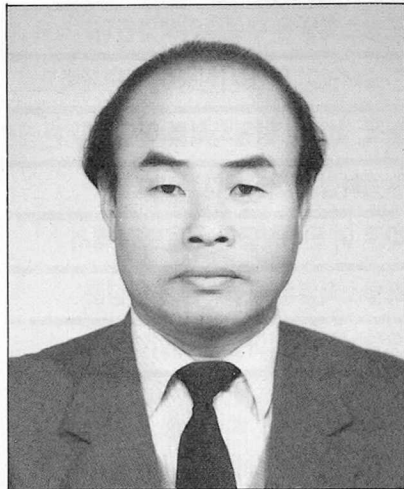
여기서 1925년까지를 근대사로 한 시대구분은 김일성이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공산주의 혁명력량을 육성”(『조선전사』16권 서문)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대사가 김일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대사는 김일성 등장역의 역사적 배경의 의미에서 중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근대편 전체의 내용은 자본주의의 성립에 따른 부르주아세력이 나타나 부르주아 민족운동이 전개되고, ‘인민의 반봉건침략투쟁’이 계급투쟁의 성격으로 계속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성 조상의 ‘혁명적 활동’ 강변

『조선전사』 근대편에 서술된 근대사는 김일성이 출현하여 그의 ‘탁월한 영도’에 의한 혁명이 전개되기까지의 준비단계이며,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김일성이 “조선인민이 고대하고 있었던 탁월한 지도자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근대의 역사인 것이다.

이러한 면은 우선 이 시기에 김일성일가(증조부, 아버지, 외삼촌)의 ‘혁명적 활동’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사는 반제반침략투쟁의 역사이고 제국주의 침략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바로 그 미국이 처음으로 침입한 1866년 서면호사건에서 이를 격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김응우(김일성의 증조부)가 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김일성의 선조가 반미투쟁에 일찌감치 앞장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위대함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910년대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정치적 및 계급적 제한성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이룩한 것이 김형직(김일성의 아버지)이며, 따라서 그는 탁월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선구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3·1운동이 김형직의 지도에 의해 평양



김흥수씨

에서 일어났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중요한 전환의 계기는 강진석(김일성의 외삼촌)의 지도에 의한 것이며, 이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8살의 어린 나이로 참가”했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김일성 선조의 활동은 김일성의 ‘위대한 혁명지도’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성격지어려 하는 것이며, 김일성이 혁명적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들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성공되지 못했으며, 1920년대 초기 공산주의운동도 내부의 종파주의로 인해 실패하였는데, 여기서 김일성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재의 김일성의 지배체제의 당위성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위정척사운동과 개화사상 我田引木

『조선전사』 근대편의 내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술동향의 하나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이며 이에 대한 인민의 반미투쟁이다. 1866년 서면호사건은 ‘미제의 계획된 침략’이며, 이를 우리나라에 대한 자본주의 침략의 출발이자 최근 1세기간 미제 침략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1868년 오페르트사건은 “미국의 젠킨스 농을 두목으로 한 날강도의 흉악무도한 책동”이며, 1880년대 초 정부의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일본군국주의를 이용하여 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설명하고, 위정척사파들이 주장한 倭洋一致的 ‘洋’을 미국침략자로 규정하여 위정척사운동을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1884년의 갑신정변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를 방해하여 우리나라

1860년대부터 1925년까지를 범위로 한

북한의 근대사 연구는

1926년의 김일성 등장역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지배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역사가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의 근대화의 길을 막으려 했으며, 미국선교사의 의료·교육활동은 식민지화를 위한 침략행위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1890년대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어간 것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며, 1905년 이후에는 일본을 ‘아시아 침략의 돌격대’로 이용했다고 한다. 1차대전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한국의 부르주아민족운동을 투항주의적이요 반인민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고, 3·1운동도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고 한다.

『조선전사』는 또 한국에서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자본주의가 성장하였고, 이와 함께 부르주아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의한 부르주아혁명이 전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세기에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부르주아 사상조류가 일어났으며, 이 사상이 개화사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84년의 갑신정변은 부르주아혁명으로, 1894년의 갑오개혁은 부르주아개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요인에 의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침략에 대한 부르주아세력의 민족운동이 근대사의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후 1890년대 후반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1910년대의 국내외의 민족운동, 그 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투쟁도 부르주아민족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고, 그 절정에 이른

것이 3·1운동이었으며, 1920년대 초 만주의 독립군활동, 임시정부 및 국내의 민족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역사적 정당성 강조

『조선전사』 근대편의 각권에서는 모두 ‘인민의 반제반봉건독립투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민’이란 상층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농민·노동자·도시빈민·군인 등 계급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상층지배계급은 ‘봉건통치배’로 지칭하며, 이들은 ‘인민’을 수탈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의 봉건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에 굴종하는 사대적·매국적·투항적·기회주의적인 부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그 봉건적 성격으로 인해 ‘나라의 반식민지적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민들을 착취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인민들이 반봉건계급투쟁과 함께 반제투쟁에서 주체가 되었다고 한다. 즉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자본주의가 기형성·판파성을 띠게 되었으므로, 인민의 반봉건투쟁과 반침략투쟁이 계급혁명투쟁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민의 반봉건반침략의 계급투쟁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근대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조선전사』 근대편의 서술에서 보이는 일관된 흐름은 ‘계급혁명론’과 ‘김일성 숭배’이다. 현재의 북한사회의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서술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지배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역사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역사전개에 있어 그 주체를 뚜렷이 제시하고 있는 점, 일반민중의 생활 및 실태에 관련된 내용이 풍부하다는 점, 민족의 주체성이 강조된 점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조선전사』가 그간의 북한 역사학계의 결산이라 할 수 있고, 북한의 역사인식과 연구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 책이 북한의 역사인식 내지 서술의 동향으로서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심스럽다. 앞으로 북한의 역사서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